

2016년 제34호

따뜻한 마음·참다운 이웃·살만한 세상을 알리는

선의 소식

Sunny Korea News

발행일 | 2016년 12월 14일
발행처 | 한국선의복지재단
발행인 | 문영기
기획·편집 | 한국선의복지재단 홍보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83-10
전화 | 02-884-5510
팩스 | 02-884-5512
홈페이지 | www.sunnykorea.org
편집인쇄 | 하은기획(02-2264-5170)

contents

+ 감사의 글

04 이사장님글

+ 한국선의복지재단

05 한국선의복지재단소개

06 조직도

07 한국선의복지재단이 걸어온 길

09 한눈에 보는 국내외 기관 및 사업 소개

+ 운영이사회의 소식

11 운영이사회의 글

13 운영이사회의 이야기

+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

15 선천성 심장병 수술사업

17 2016년도 함께했던 선천성 심장병 아이들

23 선천성 심장병 수술사업 | 재즈렐의 첫돌

25 선천성 심장병 수술사업 | 선의 이야기

27 선천성 심장병 수술사업 | 다시 만난 아이들

29 해외아동수술지원사업 | 산세다 이야기

31 해외아동수술지원사업 | 짱 이야기

+ 해외사업소식

33 베트남 - 하노이 | 하노이 적십자 선의 한국병원 운영사업

35 베트남 - 호치민 | 오케스트라 “생명을 나누는 음악회”

36 | 야학 지원 “잃어버린 교실”

39 중국 내몽고민족대학교 한국어 교육반 이야기 |
“오늘도 이선생은 달린다!”

41 미국 - Sunny Foundation 뉴욕 법인 이야기

43 미국 - Sunny Foundation LA 지부 이야기

+ 국내사업소식

45 지회 이야기

46 경남지회

47 경주지회 / 대구지회

48 영동선의연수원

49 용산구 사회복지박람회 | 파란손을 위한 기적

50 선의복지재단 뉴라이프 오케스트라 |

서울역에 울려 퍼진 희망의 하모니

51 베트남 ODA 청년인턴 모니터링 출장기 - 박유정간사(

53 중국 내몽고민족대학교 - 강원대 교류학생 소식

55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57 선의어린이집

+ 선의 사람들

58 후원자님의 글

59 통역자원봉사자 차린

60 한국선의복지재단 전준휘 간사

61 월드프렌즈 NGO 봉사단 이야기

+ 선의 나눔

63 후원보고

66 2016년도 해외결연 아동현황 / 캄보디아에서 온 편지



이웃을 위한 은행,
선한 마음을 모아 아름다운 변화를 만드는

선의은행을 아시나요?

큰 돈이 아니더라도, 선한 마음을 모으면, 이웃에게 큰 힘이 되리라는
믿음으로 시작한 아주 특별한 은행입니다.

어떤 이들은 재능을, 어떤 이들은 기술을, 어떤 이들은 기도와 물질을 예탁하면,
도움이 절실한 이웃을 찾아내어 선의를 전달하는 일을 해 온 곳이 바로 선의은행입니다.
굶는 이들에겐 밥을, 공부가 필요한 학생에겐 장학금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한 부부들을 위한 결혼식을 열어주기도 하면서
선의은행은 **작지만 아름다운 변화**들을 만들어왔습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더 귀한 선물을 전하기 위해,
한국선의복지재단 또한 더 많은 이웃을 찾아가고 더 많은 아픔을 품기 위해,
선의은행은 한국선의복지재단이 되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에게 **생명을 선물**하는 수술을 지원하고,
가난한 지역의 이웃들을 따뜻하게 돌보면서,

한국선의복지재단은 오늘도 선한 마음을 배달합니다.

+ 감사의 글

한국선의복지재단은 어려운 이웃들과 삶을 함께 나누어 가려합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은 지난 34년동안 작은 힘을 모아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실천 해왔습니다.

34년이란 긴 세월을 통해 한국선의복지재단은 작지만 꾸준하게 국내외에 많은 사랑의 씨앗을 뿌렸고, 작은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경주, 경남, 대구 지회, 선의 관악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과 영동연수원을 통해 국내복지사업 들을 펼쳐나가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들을 활발히 진행 중 입니다.

해외에서는 미국, 베트남과 우크라이나에 해외법인이 설립되었고,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에서도 현지 대학과 협력 사업을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중국 내몽고에 있는 중국내몽고민족대학에서는 7년 전 처음으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여, 연간 700명 총 5,000여명의 학생들이 한국어 강좌를 수강했고 이를 통해 대학에서 한국어과 개설을 승인한 큰 성과를 이루었으며, 베트남 하노이 썩선지역에 하노이 적십자 선의 한국 병원을 설립 하여 장애우들을 위한 치료와 이동진료 차량을 활용한 지역 보건사업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심장병어린이 초청 무료수술사업은 베트남을 시작으로 몽골,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등 수술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생명을 살리고 가정에 큰 기쁨을 안겨 주었습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의 오늘이 있기 까지는 이사회 이사님들, 자원 봉사자, 후원자, 후원기관들 그리고 직원들 의 숨은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35년을 향해 출발하는 한국선의복지재단은 더욱 겸손한 자세와 사랑의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사랑과 희망의 빛을 비추어 가겠습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 이사장
문 영 기 드림

| 한국선의복지재단소개

설립목적



사람에게는 본인의 행복과 사회 및 이웃을 위해 보람된 역할을 하려는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마음을 어떻게 살리고 키워 가야할지, 너무 작은 것이라 망설이거나,
나 혼자 돕는 것이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 쉽습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은 누구나 참여하기 쉬운 방법으로 개인, 단체, 기업들의 선한 마음을 예탁받아
국내외 소외되고 그늘진 곳, 가난하고 병들어 고생하는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의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의 활동은 첫째 사랑 봉사 나눔을 실천하고,
둘째 사람과 사람, 기관과 기관의 협력 네트워크를 이루어가며,
셋째 의료, 문화, 교육을 통하여 새 생명을 주고 선물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핵심가치

이웃을 향한 끝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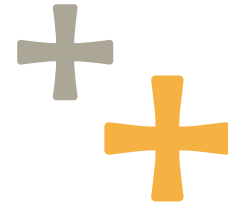
네트워킹을 통한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1. 더불어 사는 선의*
- 2. 발이 되어 뛰는 선의*
- 3. 꿈꾸는 자를 만드는 선의*



한국선의복지재단은, UN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의 17개 목표 중
보건, 교육, 글로벌파트너십에 부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있습니다.

| 조직도



법정이사회

이사장 | 문영기

이 사

권규상, 신용규,
여주기, 박영숙,
이필남, 이영희,
정진호, 조경옥,
하상진

감 사

김학진, 윤기원

운영이사회

회장 | 하숙란

이 사

권분선, 권수현, 권항자, 김옥훈, 김에스더, 김정혜,
문영기, 문정인, 문정임, 박숙자, 박영숙, 박영희,
신귀례, 엄혜정, 여옥기, 여주기, 오혜선, 이필남,
이영희, 이기자, 이미경, 조경옥, 조문자, 주기옥,
최정남, 최정애, 황명덕

한국선의복지재단 국내 외 지회/법인 및 사업장

한국선의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83-10(서계동)
T. 02-884-5510, F. 02-884-5512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녕로 16길 44-9
T. 02-886-9941~3, F. 02-874-4048

선의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녕로 16길 44-9 1층
T. 02-885-9770

경주지회

경상북도 경주시 승삼남길 23-4
T. 054-773-8212, F. 054-773-8213

경남지회

경상남도 진주시 판문동 예술촌길 44호
T. 010-9508-6586

대구지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3동 1040-24번지
T. 053-761-9975

영동선의연수원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괴목산막로 495
T. 043-744-8438

뉴욕법인

35-74 162St Flushing N Y 11358
T. 516-721-8101 F. 347-732-9459

LA지회

1020 N. Richman Knolls, Fullerton,
CA 92835, USA
T. 714-773-5578 714-726-5948

베트남지회

LOTS No. 71, 74 Linh Trung Commune,
Thu Duc District Hochiminh City, Vietnam
T. 093-561-2492

우크라이나 법인

Prospect Pravdy 31A KB. 251 Kiev Ukraine
T. +38067-130-8089

| 한국선의복지재단이 걸어온 길

1982.12

3인의 기도

이웃을 위해 자신의 삶은
내어드리겠다는 세 여인의 기도
한국선의은행은 세 여인의 헌신과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87.12

봉천동 달동네 4-2번지

관악구 봉천동에 달동네 4-2번지에
선의은행종합사회복지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벽돌 한 장이라도 함께 나누겠다는
이웃들의 마음이 모여 서로 돌보는
공동체가 살아났습니다.



2002. 12

베트남 내 해외 NGO 등록

2001년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수술 지원을 시작으로 좀 더 구체적인
베트남 지원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베트남 내 해외 NGO로 인준되었고,
이듬해 2003년 베트남 정부로부터의
표창장까지 수여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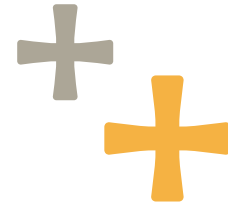


2005. 12

베트남 하노이 적십자선의한국병원 준공

베트남 하노이에 저소득 빈민의 무료진료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적십자선의한국병원'을
준공하였습니다.
매달 약 250여명이 병원에 찾아와
마음편히 진료를 받습니다.
병원진료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이들에게는,
작지만 최고의 병원이라 칭합니다.





1994.3

2001.01

52명의 아이들

봉천동 아이들을 위한 선의어린이집이
개원하였습니다. 울망줄망, 초롱초롱
눈망울의 아이들 52명과 함께
선의어린이집은 봉천동의
따뜻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선의재단에서는 2001년을 시작으로,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수술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당시 1살이었던 카잉짱은
첫 심장병수술 지원자가 되어 한국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카잉짱이 무사히 수술을
받고 돌아간 이후, 현재 2016년까지도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어린이들을 위한
심장수술지원이 2016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9.09

2016.11

중국내몽고민족대학교 한국어반 560명의 학생들

2009년, 중국 내몽고 민족대학교에
한국어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의 재단에서는 한국어 선생님을 파견하여,
매년 560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며, 교류학생사업을
진행하는 등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9개국, 335명의 심장병 수술지원 난치성 질환 치료 지원 사업

해외 1:1 아동 후원결연 등

선의는, 작지만 국내외 곳곳에서
숨어있는 선의를 전달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발걸음을 움직입니다.



| 한눈에 보는 국내외 기관 및 사업소개

베트남 법인 *Since 2005*

하노이 적십자 선의 한국 병원

썩선현 전체 인구의 11%를 차지하는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진료소로 월 평균 25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지역 내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 지부 *Since 2013*

호치민 지부의 대표 사업인 희망 나눔 야학 교실은 지방에서 도시로 올라온 시골 사람들은 지역 이주 보고를 해야 하는 절차가 있어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배움이 부족한 근로자들은 근무지 이동 시 절차 없이 이동하게 되어 어린 자녀들은 학교를 못 가는 상황이 발생 하게 됩니다. 또 가정 형편상 학교에 못 가는 학생들도 많이 생기게 되어 희망 나눔 야학 교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법인 *Since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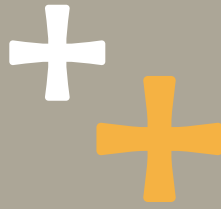
우크라이나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격려하는 선한 뜻을 실천하기 위해 2013년 1월에 설립 하였고 교육사업 (대학교 지원 및 한국어 교육), 출판사업, 복지사업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뉴욕법인 *Since 2002*

뉴욕법인은 한국선의복지재단과 마음을 같이하는 교민들이 모여 꾸준한 기도모임을 통해 2002년 설립되었으며, 뉴욕지역 노숙자, 청소년사역, 북한선교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하며, 2007년부터 뉴욕 선교사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LA지회 *Since 2008*

2008년에 설립된 선의 LA지회는 노숙자 식사제공을 위해 모이던 10여 명이 발족 멤버가 되어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단체나 개인을 선정하여 봉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6 Sunny Korea News

선의관악 종합사회복지관 *SINCE 1987*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개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역사회조직, 서비스제공, 사례관리사업 등 전반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전문기관입니다.

선의 어린이집 *SINCE 1993*

선의 어린이집은 아름다운 생각과 말, 아름다운 행동을 통해 남과 더불어 살아감에 있어서 사회성을 기르고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행복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의 육성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경주 지회 *SINCE 1995*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사랑과 봉사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들의 선의를 모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연결 시켜주는 사회봉사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회 *SINCE 2000*

마음이 있어도 길을 찾지 못해 선한 일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아름다운 마음의 후원자를 찾아서 그들의 선의를 모아 삶의 뒀안길에서 외롭고 고통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찾아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과 관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회 *SINCE 2000*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여러 형태의 어려운 이웃에게 순수한 선의로 마음을 더하고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를 꿈꿉니다.

영동 연수원 *SINCE 1995*

각종 과실나무로 뒤덮힌 무공해 청정 산골마을에 자리 잡고 있으며, 조용하고 한가로운 환경 속에 여유와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립하였습니다.

| 운영이사회의 글

“
한국선의복지재단
창립 34주년과
복지관 2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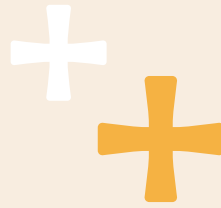
급변하는 세월의 흐름을 타고 정신없이 달려온 시간들 속에 어느덧 선의와 함께 해 온 세월들이 제 나이의 절반을 넘었고, 선의도 자라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복지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34년 전 그 시절,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세 여인이 잠언 11장 24 25절 : 흠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는 다소 역설적인 성경 말씀을 붙들고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대에 세상에 도전장을 던졌던 것이 선의재단의 첫 출발이 되었습니다.

34년 전 선의가 시작되었던 그때 그시절, 개인에게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손 내밀 곳 없던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주고, 사랑과 격려를 전달하여 희망을 심어주고자 하는 일들이 사회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부모로부터 방치된 아이들의 방과 후 공부를 지원해 주었고, 불우 학생들을 찾아 등록금을 후원하였으며, 목포 신안지역에 소년 소녀 가장을 위한 전셋집마련,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지원 등의 사역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정부의 관련 인사들까지 찾아 와 격려해 주었던 기억이 새삼스럽게 생각납니다.

조금은 조직적이지 못하고 허술하기도 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주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조금이라도 반응하기 위해 시작한 선의은행 (한국선의복지재단의 전신) 이었지만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 시절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성과 섬김으로 화두가 되었던 선의은행 이였음이 지금도 생각하면 눈시울이 축축히 젖어 드는 기쁨과 보람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몸으로 물질로 온 몸을 다해 섬기시며 고통받는 이웃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이 곳 저곳 뛰어 다니며 함께 했던 이사님들과 후원자님들 한 분 한 분의 얼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서 그리움으로 잠깐 속연해 지기도 합니다

그 중에는 이미 우리 곁을 떠나 천국에서 선의를 추억하고 계실 앞 서 가신 어른들이 십여분이 됩니다.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 선의 복지재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한 시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선의복지재단은 국내를 넘어,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우크라이나, 미국 등 여러 지회를 통해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났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라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들입니다.

선의재단은 청년의 나이답게 흔들리고 변화되는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여 착하고 올바른 선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즈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결과는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기에 땅과 만물이 얼어붙을 겨울을 앞두고 신뢰가 없는 현실 속에서 이웃들을 향한 작은 정성조차 외면당하면 어떻게하나? 라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복의 정욕 이생의 자라는 다 지나가는 것이고 남는 것은 허무뿐이지만 선한 일을 위해 심은 한 일의 밑알은 땅에 떨어져 썩으므로 많은 열매를 맺는 진리를 우리는 선의재단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선의 재단은 다른 ngo단체들과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드러나는 바깥 부분도 돕지만,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영적인 부분도 도우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외적으로 크고 화려하진 않더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토대가 되어 내실 있고 견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의 오늘이 있기까지 기도와 후원으로 성원해 주신 선의의 후원자와 우리 선의 식구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 드리며 크신 하나님께서 각 가정과 하시는 사업에 후히 축복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선의 34년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앞으로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 운영이사회 회장
하 숙 란 드림

+ 운영 이사회 소식

| 운영이사회 이야기



야외운영이사회 10월 (별초지문화수목원)





11월운영이사사회(실로암회의실)



5월야외운영이사사회(벽초지문화수목원)



최정남이사취임



5월 운영이사사회 회의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도 아로니아묘목 후원

2016년도 6월29일부터 3박 4일 전남 완도군 청산도에 복음을 이란 주제로 사랑의교회 청산도 아웃리치팀과 선의 이사회가 함께 하였습니다

한국 선의 복지재단 이사회에서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목회의 어려움과 경제적 자립도가 낮다는 소식을 알게되었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청산도 미자립 6개 교회(청산 제일교회 동부교회 중앙교회 청산교회 청산전원교회 청산 등대교회)에 아로니아 3년생 묘목105주씩 심어 드려 그 열매를 수확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 각 교회에 식수를 하였습니다.

묘목이 자라면 키도 키지고 가지가 많이 생기기에 간격이 넓게 심었고, 아웃리치 팀들이 방문했던 시기에 심었기 때문에, 사진에서는 엉성해 보이고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만 1년 후면 수확이 가능한 묘목이기에 일년 후 풍성하게 열릴 아로니아 열매를 생각하니, 나무를 심는 그 마음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섬마을에서 힘든 사역을 하시는 노인분들이 많은 마을에서 함께 식구처럼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에게 큰 위로가 힘을 드린 섬김이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자 여주기 전 이사장님 외 자녀손일동 권분선(이일화) 조경옥 여육기 이미경 사랑의 교회(하숙란)의 119팀 일동 특히 여주기 전 이사장님께서 큰 힘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

| 선천성 심장병 수술사업

+ 두근두근 가슴 뛰는 내일을 선물 합니다.

파래진 입술과 피부, 더딘 성장, 여러 합병증...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심장의 구조에 결함이 있는 질환으로 선천성 심장병은 85%가
원인불명으로 발병 이유를 알기 어렵고 수술 시기를 놓쳐버리면 조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입니다.
지금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과 같은 해외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
선천성 심장병 아이들은 열악한 의료 환경 탓에 제대로 된 진찰 조치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 선천성 심장병은 한 번의 수술로도 완치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심장병 환자의 수는 늘어가고 검사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사망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한국선의를복지재단은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무료로 수술을 받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의재단 심장병 수술 사업현황

베 트 남	207	필 리 핀	58
라 오 스	11	중 국	23
캄 보 디 아	20	몽 골	8
A 국	3	말레이시아	4
미 안 마	1	총 합 계	335

2016년도 선의재단 심장병수술사업현황

베트남	10	필리핀	8	몽골	1
총합계		19			

(2016년 11월기준)



+ 선천성 심장병 수술 지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료를 수집합니다.



의료기관을 통해
수술 대상 아동을 선정합니다.



여권을 발급하고
한국으로 초청합니다.



입국과 입원을 돕습니다.



정밀검사와 수술 등
병원 생활을 지원합니다.



즐거운 추억을 선물합니다.



귀국을 돕고
새 삶을 응원합니다



지속적으로 아이들의
성장을 돕습니다.

+ 대표적 선천적 심장기형

01 활로4징 (TOF)

청색증형 선천성 심장병 중 가장 흔한 것으로, 심실중격 결손증, 혼합형 폐동맥 협착, 대동맥 기승, 우심실비대의 네가지 해부학적 특징을 가집니다.

정맥피가 우심실에서, 좌심실 혹은 대동맥으로 흐르게 되어 폐혈류량이 감소되고 저산소증을 일으켜 증상이 나타납니다.

02 심실중격결손증 (VSD)

청색성심기형과는 달리, 심실중격결손증은 구멍의 크기에 따라 자연경과가 매우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소형구멍은 증상이 없지만, 심실중격결손증을 가지고 있던 아기의 사망 원인은 20-50% 정도는 다른 선천성 기형의 동반이 그 원인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03 동맥관개존증(PDA)

동맥관은 아기가 태어나면 저절로 막힙니다. 그러나 그냥 열려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동맥관개존증이라 부르고, 대형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맥관개존증으로 조기 사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수술하지 않을 경우, 환자의 80%정도가 30대 성인까지 생존하고 40%정도가 60대까지 생존합니다.

04 심방중격결손증 (ASD)

심방중격결손증은 아동기에 증상이 심한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심한 증상이 발현되기도 하는데, 심방조동, 세동, 폐쇄성 폐혈관병변 등이 발현됩니다. 평균수명은 약 40세이고, 50대가 되면 거동이 불편해집니다.

[선천성 심장병 수술사업]

| 2016년도 함께했던 선천성 심장병 아이들

75차 베트남 심장병 어린이 (5월 10일, 부천세종병원)



휘(1세)



지엽(3세)



카잉(8세)



링(7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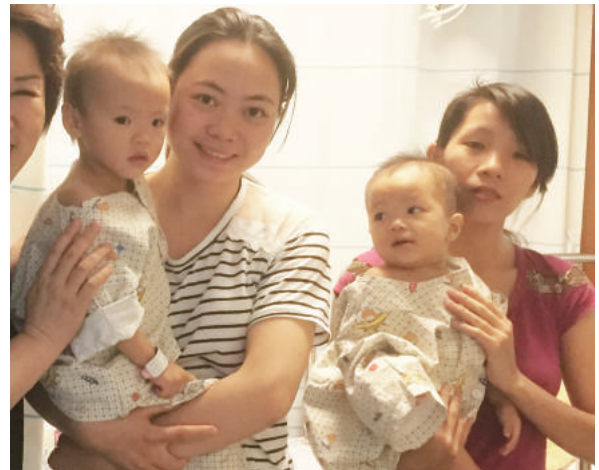
76차 베트남 심장병 어린이 (5월 24일, 서울아산병원)



땀(3세)



응아(1세)



+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

77차 베트남 심장병 어린이 (5월 24일, 부천세종병원)



눔(13세)



빙(14세)



78차 베트남 심장병 어린이 (5월 10일, 부천세종병원)



라구나(9세)



모레노(8세)



델케스틸로(2세)



선 헤르난데스(1세)



망가니트 제즈렐(8개월)



+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

79차 베트남 심장병 어린이
(9월 26일, 부천세종병원)



응안(2세)



끼엔(1세)



80차 필리핀 심장병 어린이 (10월 24일, 부천세종병원)



유안(7세)



라파엘 (16세)



로젤(6세)





[선천성 심장병 수술사업]

| 재즈렐의 첫돌

2016년 여름.
5명의 필리핀 아이들과 보호자가
두려움 가득한 얼굴로
한국땅을 밟았습니다.

아이들의 심장병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제즈렐(1세 남), 셴(2세 남), 카스텔로(2세 남), 마트(9세 남), 메리엘(10세 여).. 1살에서 10살까지의 아이들은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아직 어린 나이 이긴 하지만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아이들입니다.

제즈렐(Manganip Jezhreel Ventinilla)은 필리핀 퀘손시티에서 온 1살된 작은 남자아기인데 TGA(대혈관전위증:심장에서 나와 대동맥과 폐로 연결되어야 하는 2개의 큰 혈관이 서로 뒤바뀐 경우)라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심장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처음 만난 제즈렐은 푸르고 예쁜 얼굴에 가느다란 팔다리가 달랑달랑 붙어있는 청개구리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 가녀린 울음이 마치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가여웠습니다.

한국으로 오기위해 마닐라공항의 탑승게이트 앞에

서 기다리는동안 심히 울고 보채더니 얼굴은 더 파래지는 와중에 비행기는 연착되어 한참을 더 기다려 탑승하였지만 상태가 나빠지던 제즈렐은 한국 도착을 1시간여 남긴시점부터 푸르던 얼굴이 거의 흑색이 되고 호흡이 자주 멈추는 비상상황이 되어 기내응급조치도 시행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무슨 큰일이 날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병원에만 가면 아기가 살 수 있을텐데... 그 때까지만, 그 때까지만 아무일 없이 견디게 해주세요. 애간장이 타는 마음에 목숨건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100년같은 1000년 같은 1시간이 지나고 제즈렐을 포함한 5명의 아이들이 무사히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이, 건대병원에 무사히 입원을 한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입원직후 제즈렐은 병실에서 관리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태여서 수술전부터 중환자실과 병실을 오락가락 하였습니다. 병동에서도 교수님도 이 아이들을

어떻게 데리고 왔냐고, 모르니 데리고 왔지 알았으면 데리고 올 수 없었다고 하십니다. 저 상태로 이제까지 살아있는 것이 천운이라고 하십니다. 필요한 검사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지만 제즈렐은 맘놓고 검사할 상태도 안돼고 그러다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더라도 하면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수술전까지는 어린엄마가 하루종일 앉지도 못하고 서서 울고 보채는 아기를 어르고 달래야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아기가 7월 29일 수술을 받고나니 푸르던 얼굴이 단번에 핑크색이 되고 호흡도 좋아졌으며 편안한 모습으로 누워있기도 하고 잠도 잘자고 점점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울던 아이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좋아지는 걸까요? 신기하기만 합니다.

2016년 10월, 필리핀에서 다시 만난 제즈렐. 수술후 고작 3개월 남짓 되었는데 정말 이 아기가 제즈렐이 맞는가 싶을만큼 몰라보게 달라져있었습니다.

통통하게 살오른 얼굴은 더 이뻐졌고 팔다리에 힘 이 생겨 이제 곧 설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대여섯 시간? 꽤 오랜시간 함께 있었는데 여느 아기들이 그러는 것처럼 놀다가 먹다가 장난치다가 자다가 합니다. 한번도 울지도 보채지도 않습니다. 정말 제즈렐은 앞으로 건강하게 잘 성장할 일만 남았나 봅니다. 엄마와 외할머니 말이 제즈렐은 이제 건강하다고 합니다. 우유도 잘 먹고 체중도 늘었으며 이제는 울고 보채지도 않고 방긋방긋 잘 웃는다고 합니다. 아직도 유일하게 우는 순간이 있는데 배가 고플때라고 하는 말을 듣고 다같이 행복한 맘으로 웃는데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11월 30일 건강해진 제즈렐의 첫 돌잔치는 감사와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 심장병사업부장 | 이명숙



수술후 3개월 지나



가족들과 함께



감사한 첫돌 잔치

+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

[선천성 심장병 수술사업]

| 선의 이야기



수술후 중환자실에서



선(Hernandez Sheon Lee Mangaring)은 필리핀 실랑지역에서 온 2살 남자아기입니다. TOF(활로4징 후:심실결손, 대동맥기승, 폐동맥협착, 우심실비대 증을 동반)라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선을 수술하려면 100만페소(약 2,400만원)정도가 있어야한다고 합니다. 농사로 월수입 15만원 정도가 고작인 선의 젊은 엄마아빠는 아무것도 안먹고 죽을 때까지 일만 한다고해도 그 돈을 절대로 마련할 수가 없어서 눈 앞에서 아들이 아픈 것,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선은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시원하게 큰 눈과 귀여운 미소가 예쁘지만 입술도 손발도 푸른 선은 호흡도 힘들고 잘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잘 못자고 심장병으로 인해 일주일이면 3~4번 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젊은 부모는 아기를 안고 응급실로 달려가 위험한 순간만 겨우 넘기고 오기를 반복하며 이제까지의 20개월동안 견뎌왔는데 사는데 사는 것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오기 이틀전까지도 발작으로 입원해 있었다고 하니 어쩌면 이번 한국에 오는길에 동행하지 못할 뻔했는데 함께 와 수술받게 되어 너무나 다행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건대병원에 입원한 선은 제즈렐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제까지 살아있었는지, 어떻게 한국까지 왔는지가 의문 일만큼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한 산소포화도는 심각할만큼 계속 떨어지고 열이 나서 입원직후 수술을 받기도 전부터 기도삽관을 하고 병실과 중환자실을 오라가라하며 의료진의 집중관리를 받았습니다. 자칫 더 나쁜 상황이 생기기전

빨리 수술하는 것이 좋겠다는 교수님의 결정으로 제일 먼저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수술로 푸르던 얼굴이 단번에 환해진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99% 막혀있던 폐동맥으로 혈액이 흐를 수 있게 되었고 산소포화도도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한번의 수술로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지요... 감사하기만 합니다. 매우 안좋은 상태로 한국에 왔지만 제일 먼저 수술을 받아 하루하루 몰라보게 건강해지는 선의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2016년 10월 3개월만에 다시 만난 선은 푸르던 얼굴과 입술과 손톱 모두 환하고 밝아졌으며 잘먹고, 잘자고, 잘못고, 잘크고 있다고 합니다. 한 주에 서너번씩 하던 발작을 수술후에는 한번도 하지 않았고 건강해서 이제는 정말이지 살만하다고 합니다. 감사의 인사로 집에서 농사지은 알궃은 파파야, 바나나를 한국에 계신 여러분께 전하고 싶다며 잔뜩 주었지만 그러겠노라고 하고 가지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 마음만 받은 것으로 해야겠어요.

선의 심장병은 어느정도 성장한 후에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심장병이라고 합니다. 제즈렐도 워낙 심각했던 만큼 수술후 정기검진과 관리가 필수이기에 두 아기의 부모와 지속적인 연락으로 관리와 정기 검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즈렐, 선을 포함하여 함께 왔던 다섯명의 아이들 모두가 건강하고 그 가정은 점점 더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 심장병사업부장 | 이명숙

**제즈렐, 선을 포함하여 함께 왔던
다섯명의 아이들 모두가 건강하고
그 가정은 점점 더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수술후 3개월 지나고

| 다시 만난 아이들 링, 카잉, 지엠피

링, 카잉과 지엠피는 베트남에서 온 심장병 아동들입니다. 2016년 5월에 우리재단을 통해 세종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베트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뒤인 6월 9일에 지엠피는 팀장, 전준휘 간사와 한수정 봉사단원이 세 아동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언제 수술을 받았냐는 듯이 해맑게 뛰어놀며 건강해진 아동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링의 가정입니다.



다시 만난 아이들 링

링은 7살, 여자아이입니다. 엄마와 중학생인 오빠와 함께 살고 있고 같은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계십니다. 링의 집은 하노이 시내에서부터 차량으로 2시간여를 달려가야 하는 타이응우옌에 있습니다. 큰 길에 차를 세우고 차가 들어가지 않는 시골길을 10분 정도 걸어가면 링의 집이 나옵니다. 재단 직원들의 방문 소식에 링의 엄마는 자전거를 타고 큰길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링은 수줍은 듯 엄마 뒤에 숨어 눈을 반짝거리며 재단 직원들을 훑어봅니다. 링은 2009년 여름에 태어났습니다. 귀여운 막내딸

로 온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던 링은 2013년 1월 갑작스럽게 아빠의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링과 가족들을 위해 새 집을 지어주시고 계셨는데 어느 날 아침 감기증상이 찾아왔고 손발 마비로 이어져 그날 저녁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런 아빠의 죽음으로 당시 12세였던 링의 오빠에게 우울증 증세가 찾아왔고 활기찼던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1년 뒤 링에게 심장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링의 엄마는 어린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기다리고 있던 중 한국선의복지재단을 만나게 되어 감사히 심장병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한국으로 수술을 받으러 가면 생체실험을 할 수도 있다고 겁을 줘서 수술을 받으러 가는 것이 두려웠지만 한국에 와서 무사히 수술을 받고 건강해진 링의 모습에 감사한 마음이 큼니다.

링의 엄마는 동네 이웃들 농사를 돕고 계시지만 실질적인 수입은 없는 상태로 월 소득 10만원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골지역이라 먹을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학비를 지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링과 링의 오빠는 반에서 1등을 도맡아 할 정도로 학업 성적이 뛰어나지만 대학 학비가 걱정되는 엄마는 자녀들이 공부를 잘 하는 것도 걱정입니다. 다시 건강해진 링의 해맑은 모습 덕분에 조용했던 가정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가정은 카잉의 집입니다.

카잉은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입니다. 링의 집과 같은 타이 응우옌 지역에 거주하지만 링의 집에서도



다시 만난 아이들 카잉

1시간여를 구비 구비 산길을 달려 올라가야 하는 호적한 산 중턱에 살고 있습니다. 타이 응우옌은 고산 지대로 녹차를 많이 생산하며 카잉의 집 역시 녹차밭을 가지고 있고 집에서 직접 가마에 녹차를 구워 먹습니다. 넓은 시골집 안에는 어미 돼지와 새끼 돼지들을 키우는 우리가 있고 닭이 알을 낳고 마당 앞에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작은 연못이 있습니다. 카잉은 태어난 지 한 달 후 폐렴증상으로 병원에 갔다가 심장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소망은 아이가 건강하게만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재단을 통해 수술을 받은 카잉은 수술 전에는 하루 한 끼 밖에 못 먹었지만 수술 후 다른 남자 아이들처럼 장난기 많은 건강한 모습을 보였고 하루에 큰 공기로 두 끼씩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잉은 이제 남동생과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고 핸드폰 게임과 만화영화를 좋아하는 평범한 초등학교 소년 되었습니다.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해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학교를 매일 자전거로 통학할 만큼 건강해졌습니다.

카잉의 할아버지는 인도차이나 전쟁에 참여하실 당시 고엽제 피해를 받아 2009년도에 갑상선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 역시 현재 대장암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아픈 할머니는 어린 카잉이 건강해진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지엠피는 4살 여자아이입니다. 지엠피의 집은 하남, 하노이 시내에서 3시간이 걸리는 지역에 살고 있습

니다. 지엠피의 집에 가는 길에 갑작스런 소나기가 내렸지만 귀여운 지엠피를 보러가는 마음은 여전히 즐겁습니다.

마지막 가정은 지엠피의 집입니다.



다시 만난 아이들 지엠피

지엠피는 7개월 미숙아로 1.6Kg의 작은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4개월 때 밥을 먹지 못하고 울기만 해서 병원에 갔더니 심장병을 가지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엠피는 제왕절개를 통해 태어났으며 태어날 때부터 왼쪽 눈꺼풀이 완전히 떠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한국 의사의 소견으로는 아마도 제왕절개 당시 눈 신경에 충격이 가해졌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엠피는 수술을 받기 전 아픈 몸 때문에 엄마 품에서 떨어질 줄 모르는 작은 아이였습니다. 수술을 받고 난 뒤에는 여전히 작은 7kg의 인형 같은 아이지만 누구보다 활동적으로 온 병실을 뛰어다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한 살 터울인 지엠피의 오빠는 20kg로 지엠피와 한 살 차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이지만 여동생을 너무도 예뻐해서 달려가서 안아 주기를 반복합니다. 지엠피는 그런 오빠가 귀찮기만 하다는 듯이 도도하게 뛰어가 버립니다.

집안의 활력소인 지엠피가 내년에는 유치원에 들어 갑니다. 친구들과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노는 것이 부모님의 작은 바람입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 해외사업팀장 | 지성은

+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

[해외아동수술지원사업]

보자기로 배를 감싸야 하는 소녀 | 산세다 이야기

필리핀 빈민촌에 살고 있는 산세다는 항상 보자기로 배를 감싸고 있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배가 나온 산세다는 태어날 때부터 탈장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탈장이란, 신체 장기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조직을 통해 돌출되거나 빠져 나오는 증상으로 산세다

는 탈장 수술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루 7,100원으로 가족을 책임지시는 아버지. 산세다의 가족은 6명입니다.

산세다의 아버지는 일주일에 3일 목,금,토요일만 고물상에서 일을 하고 하루 270페소(한화 약 7,100원)



한달에 12번 일 할 수 있는 경우 월 수입 한화로 약, 85,200원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 급료로 생계를 유지하고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산세다의 탈장수술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었고, 방법을 찾아보던 중 필리핀 내 사회복지 시스템이 적용되는 병원인 PGH(philippine general hospital)에서 산세다의 수술이 가능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에서는 산세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주기 위해 모금활동을 시작하였고, 네이버 해피빈에 산세다가 처해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산세다를 응원하는 작은 마음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해피빈에 후원을 해주신 1,194명의 후원자분들과, 신한은행 임직원 기부와 매칭이 그곳에 함께였습니다.

그렇게 작은 마음이 모여 산세다의 탈장 수술비가 모금 되었고, 그렇게 모금된 소중한 후원금으로 1월 20일 필리핀 병원인 PGH(philippine general hospital)에서 산세다의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은 새벽부터 시작 되었고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산세다의 회복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산세다는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며 회복중에 있습니다. 보자기를 항상 두르고 있었던 불룩한 배가 없어져 신기한듯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웃고 있는 산세다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동안 탈장으로 인해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산세다는 친구들과 함께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산세다의 행복한 삶을 기도합니다.

산세다가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주세요.

한국선의복지재단 해외아동수술지원사업 현황

시행연도	시행차수	국가	병명	시행병원
2008	1	베트남	구순구개열	세종병원
2009	2	베트남	전신화상	연세의료원 재활병원
2011	3	베트남	구순구개열	분당서울대병원
2012	4	캄보디아	스터지웨버중후군	신촌세브란스
2013	5	베트남	선천성 골형성부전증	삼성서울병원
2014	6	필리핀	선천성감각신경성난청	부천성모병원
2015	7	인도네시아	양성종양(혈관종양의중)	부천성모병원
2016	8	필리핀	탈장	PGH (Philippine General Hospital)
2016	9	베트남	백내장	Ho Chi Minh Children's Hospital
2016	10	몽골	만곡족	고대구로병원

+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

[해외아동수술지원사업]

베트남 산간 오지에서 태어난 소수민족 | 짱(Trang) 이야기

베트남은 다민족 국가로서, 정부가 공인하는 민족의 수는 54개에 이릅니다. 각각의 소수민족은 국가를 이루지 못한 채 산간 지역에서 생활하는 민족도 있습니다.

짱은 그 중에 산간 오지에서 태어난 소수민족으로, 짱의 생활 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짱의 부모님은 경제적인 여건이 안되어 짱을 고아원에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시기,
고아원에 위탁된 이제 여섯 살된 어린짱에게,
또 다른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짱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가고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력을 잃어가는 아이의 마지막 희망

선의재단사무국에서는 이러한 짱의 소식을 알게 되었고, 베트남 시내 안과병원을 찾아가 시력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사물의 형체가 보이지만 점점 멀어져 가는 시력을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의사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 수술을 하게 되면 완전한 시력 회복은 어렵지만 더 이상 시력이 나빠지지 않고 사물의 형체를 인식 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6살 밖에 되지 않았는데 너무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짱의 시력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눈 수술이 시급했고, 회복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짱의 시력을 지켜주기 위해 한국선의복지재단에서는 수술비 모금을 진행하였고, 2016년 6월, 6살 어린이 짱은 베트남 호치민 아동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시기가 늦어져 완전히 시력을 복원한 것은 아니지만,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시력을 완전히 잃을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짱은 앞을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영양 관리를 잘해준다면 시력이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도 전해 들었습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은 1,241명의 네티즌과 신한은행 임직원의 후원금을 통해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짱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비록 인터넷과 은행의 개념을 잘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였지만 한국의 많은 분들 덕분에 수술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현하였습니다.

따뜻한 마음들이 모이니, 그 마음들이 짱에게는 빛과 희망으로 전해졌습니다.

짱에게 밝은 빛을 선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하노이 적십자 선의 한국병원 운영사업

하노이 적십자 선의 한국 병원(Ha Noi Red Cross Sunny Korea Clinic)은 한국선의복지재단에 소속된 기관으로 하노이 시내에서 북동쪽으로 35km 떨어져 있는 썩선현에 위치하고 있으며, 썩선현 전체 인구의 약 11%인 빈민 3만 여명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무료 진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재활센터'로 전환 운영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전반적인 병원 시설 및 의료 환경이 열악하고, 총인구의 78%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호치민, 하노이 등 대도시에서 집중되어 있는 현대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며, 의료비 인상으로 중·하층 주민들이 질적인 의료 수혜를 받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재단은 2006년부터 본격적인 의료 활동을 시작하였고, 재활치료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2009년부터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며 현재 재활치료도 함께 운영 중에 있습니다.



1. 무료진료소 운영 :

월 소득 \$25 미만의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크게 내과와 재활로 나누어져 있으며 내과는 현지 의사선생님께서, 재활은 한국 물리치료사인 정덕천 선생님께서 진료를 담당하십니다.

2. 이동진료 실시

썩선현은 26개의 마을, 마을 한곳당 1개의 보건소가 위치해 있지만, 거리가 멀고 진료비용이 발생하여 저소득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3. 장애아동 건강검진 실시

선의병원은 하노이 내 4군데의 장애학교와 MOU를 맺고 2015년부터 장애아동 건강검진을 실시해 왔습니다. 2016년인 올해도 지금까지 3차례 진행을 해 왔습니다. 장애학생 뿐만 아니라 교직원, 학부모들에게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진을 통하여 초기 질병을 발견하고 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재활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은 가정에서도 자가 치료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재활훈련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공 합니다.

4. 가정방문 실시

평일 오후에 물리치료사 선생님과 함께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환자 가정에 방문하여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가정에서도 가능한 자가치료법을 알려드립니다.로서 지속적인 치료 및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5. 1:1 아동결연후원금 전달

분기별 1회, 선의재단을 통해 심장병 수술을 받은 썸선현에 거주하고있는 아동 중 저소득층 아동을 선정하여, 결연아동 집에 방문하여 후원금을 전달합니다.

6. 연말행사 실시

선의병원에서는 매년 말에 한 해동안 병원을 방문해주신 환자 분들과 그 가족들을 초청하여 연말행사를 진행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누릴 수 없었던 문화생활, 볼거리 먹을거리 등을 제공하여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 해외사업소식

[베트남 - 호치민 이야기]

HARMONIC INTERNATIONAL Youth Orchestra Fundraising Concert
Ben Thanh Theater / 10. June. 2016 / 7PM

베트남 호치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오케스트라 “생명을 나누는 음악회”

호치민 필하모닉 한국 학생 40명, 베트남 학생 30명으로 구성된 연합 오케스트라입니다. 이 단체는 음악을 통한 문화교류와 베트남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단체입니다.

2014년에 설립된 오케스트라는 년 2회의 펀드레이징 콘서트를 개최하고 콘서트를 통해 모금된 수익금으로 심장병, 고엽제 등으로 고통 받는 주변의 베트남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 합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주중에는 학교생활로 분주하게 보냅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쉬고 싶을 법도한데, 소중한 주말에 시간을 내어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법을 배우고, 그 속에서 사랑을 실천해 갑니다. 그리고 국적이 다른 단원들은 비록 서로의 언어는 다르지만 서로 호흡을 맞추어 음악을 만들어 가고, 음악으로 하나가 되어 갑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는 독주가 아닌 협주로 만들어지는 음악입니다.

잘하는 사람의 소리가 튀어 나와도 안 되고, 어떤 악

기의 소리가 사라져서도 안 됩니다. 모든 악기는 각자의 소리를 내어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야 하고 그 속에서 화음을 만들어 아름다운 선율의 하모니를 이루어 냅니다. 요즘처럼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화합을 배워가는 학생들을 보면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자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과 화합으로 만들어 낸 음악은 콘서트를 통해 사랑의 음악을 흘려보냅니다.

올 6월, 열심히 준비한 음악으로 제4회 정기 콘서트를 1군에 있는 벤탄 극장에서 개최했습니다. 1,400여개 가량의 객석은 콘서트를 보러 온 많은 지인과 관객들로 채워졌고, 그 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모여 \$3,000 가량의 모금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심장병으로 생명을 잃어가던 분에게 전달되어 새롭게 살아가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사랑과 배려, 희생으로 만들어진 음악은 죽어가던 한 생명에게 생명을 나누는 음악이 되어 퍼져나갑니다.

야학 지원 “잃어버린 교실”

2016년도 호치민지부사업

- ▶ 호치민필하모닉 오케스트라지원사업
- ▶ 야학지원사업
- ▶ 한국어교실
- ▶ 고아원지원사업 (물탱크지원 재봉틀지원)
- ▶ 장애인시설지원 (천장보수공사, 주변환경미화)



베트남 호치민 야학지원 사업

베트남에는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초등교육과 같은 기본적인 교육조차 받을 수 없는 아이들도 이곳에는 적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 야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학에 오는 아이들은 대부분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그 중에는 우리는 당연히 즐기는 매끼의 식사를 걱정해야 할 만큼 힘든 가정형편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3~4명의 아이들의 가정에 쌀을 지원합니다. 우리에겐 크지 않아 보이는 도움이 그들에겐 큰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 희망을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현재 1:1 결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학에서는 이들의 모국어인 베트남어와 기초수학(산수와 같은 연산), 그리고 영어 등을 가르칩니다. 늦은 시간 작은 교실에서의 수업이 이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야학 선생님들은 피곤함을 무릅쓰고 하루도 쉬지 않고 아이들을 만나러 옵니다. 야학의 선생님들도 대부분 타지(시골)에서 이곳(호치민)으로 와서 학교생활을 하는

대학생이라 생활이 그리 넉넉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동생들을 돌보듯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가르칩니다. 월급도 없는 이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선생님들을 위해 1년에 한 번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으며 배움의 꽃을 피우던 야학교실을 얼마 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교실이 계약이 만료되어 연장을 해야 하는데 다른 시설로 넘어가게 되어 안타깝게도 더 이상 그곳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수업을 잠시 멈추려했지만,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멈추질 않습니다. 그들은 같은 시간 교실 앞 공터에서 수업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이 간절함이 하늘에도 들렸나 봅니다. 그들에게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더 따뜻하고 아늑한 교실이 마련되었습니다. 비록 임시 교실이지만 아이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야학교실이 아이들의 웃음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 해외사업소식

우크라이나지부 이야기



우크라이나 목상집 발간

한국에서 우크라이나를 떠올릴 때, ‘김태희가 발을 갈고, 김희선이 거리에서 아이스크림을 파는 나라’라는 미녀들이 많은 나라라는 생각들을 떠올리곤 하지만, 이곳은 추운 기후로 인해 술 문화가 발달되었고 이로 인해 길거리에 둘러앉은 술꾼들이 많아 알코올 중독자가 정말 많은 곳입니다.

또한 최근, 유로마이단 혁명과 러시아와의 전쟁, 크림반도를 러시아에게 빼앗긴 아픈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전쟁이후 경제위기에 빠졌고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선의 우크라이나 지부는 여러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첫째는 출판물 통한 ‘계몽사업’입니다. 2012년 가을에 시작하게 되었던 출판계몽사업은, 현재까지 지난 4년간 목상집 85,000권, 단행본 28,000권, 수감자를 위한 도서 4,000권, 브로슈어 7,000부를 출간했습니다. 이 도서들은 교회, 재활원, 고아원, 청소년 생활원까지 배달되고 군부대에도 전달됩니다. 일부는 재소자들에게도 전달됩니다. 책을 통해 감명과 변화를 경험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이제 출간한 책 모두를 이북(e-book)으로 제작 중입니다. 완성되면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보급하려고 합니다. 곧 러시아어



출판을 통한 계몽사업



우크라이나 목상집 발간



아동심장병 수술지원사업



고려인을 위한 건강검진 한방의료봉사



우크라이나 목상집 발간

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선의 우크라이나지부가 출판한 모든 책을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아동심장병원을 통해 환아들의 수술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심장병 환아들에게 국가에서 무료로 수술을 해줍니다. 선의는 이 병원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정기적인 지원을 통해 아동의 수술을 지원했습니다. 수술을 받는 환아들 중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준비와 수술 기간 중 체류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대상으로 필요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고려인들을 위한 건강검진과 한방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구소련시절 우크라이나로 이주해 온 고려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같은 민족이지만 구소련 스탈린의 소수민족 말살정책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겼던 분들과 그 다음세대들입니다. 점차 고령화되어가며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봅니다. 이 분들을 위해 한방의료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심장병원과 협력해서 실제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되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 내몽고민족대학교 한국어 교육반 이야기



| “오늘도 이선생은 달린다!”

이현주선생님 수업사진

중국 내몽고자치구 톡라오에 내몽고민족대학교 한국어반 선생님이로 발령받아 온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학생들과 수업에 제법 익숙해졌고, 이곳의 한국어수업에 대한 열정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2008년 가을, 한국어강사로 활동을 시작한 제가 벌써 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내몽고의 한국어 강사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적을 중심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선생님이 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한국어강사였지만, 초년생 시절 나도 모르게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평가하거나, 개인적인 삶까지 판단하는 듯했고, 동기 선생님과과의 우연한 대화를 통해서 내가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한국적인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요구했었던 것 같다는 반성도 해 보았습니다.

3년간 중국에서 한국어 지도경험 등을 통해, 한국어 강사로서 고민하며 성장해왔고, 선의재단에서 한국어강사가 되기까지의 지금의 나를 돌이켜보면, 한국어 강사 초년생시절의 이선생과 지금의 이선생은 같은 사람이면서도 조금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물론 수업의 시작과 마지막도 같고, 수업에 임하는 마음가짐은 그대로지만, 왠지 모르게 수업에 임해서 학생들을 대할 때의 마음이 전보다 훨씬 간절해졌다는 생각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서로 비슷비슷한 학생들, 혹은 좀 더 특별하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한국어반에 온 학생들과 짧으면 한 학기, 길면 2년이라는 시간동안 한국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인연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시간동안 비록 지금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로 잠깐의 인연을 맺고 있지만, 먼 훗날, 톡라오가 아닌 곳에서 만났을 때 각자 어떠한 모습을 하고 살고 있을지를 상상해 보면 상당히 기대가 되고, 나의 작은 헌신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임을 다시 한 번 깨닫곤 합니다. 수업 도중, 학생들에게 간단한 활동을 해 보라고 시켜놓고는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학생들이 너무나도 예쁘고 마음이 행복합니다. 특히, ‘수업분위기를 망치고, 공부를 그렇게도 안한다.’는 악명높은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이 수업에 그렇게도 열심히 참석하는 모습을 보고있노라면, 겉으로 내색은 안해도 마음이 너무나도 즐겁



드라마 "대장금"으로 수업중인 학생들

중국내 몽고민족대학 학생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한가지.

‘통랴오를 섬기러 왔다는 것’ 나의 재능과 기술을 가지고,
통랴오를 섬기고 사랑하면서, 세상에 이윤을 남기는 삶을 사는 것

습니다. 아직 학기 초라서 열심히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나 예쁘고, 그 학생들도 마치 내 마음을 아는 듯 잘 따라와 주는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 집니다.

비록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는 춥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지만, 내몽고의 따뜻한 인심에 미소를 짓게 되고 힘이 나곤 합니다. 어느 날은, 다음 수업장소로 이동하는 길에 세 명의 학생들과 간단한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식사를 하면서 내가 “수업이 있는 당일에 선생님은 너무 바빠서 하루종일 밥을 먹는 등 마는 등 한다.”고 했더니 내 얘기를 들은 세 명의 학생이 모두 그 다음 날, 선생님 밥 굶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맛집 배달메뉴판을 여러 장 사진으로 찍어 문자메시지로 보내왔는데, 마음 써 줘 고마우면서도, 저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학생들에게는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가끔, 원어민 한국어강사로서 받는 열렬한 환영과 친절함 속에서도 타지생활에 몸과 마음이 한국에 대한 향수로 지칠 때 즈음, ‘나는 왜 이곳 내몽고 통랴오에 왔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지쳤고, 실망했는가?’

이렇게 저 스스로 묻곤 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한가지. ‘통랴오를 섬기러 왔다는 것’ 나의 재능과 기술을 가지고, 통랴오를 섬기고 사랑하면서, 세상에 이윤을 남기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되뇌이며 목적을 뚜렷하게 만들곤 합니다.

내몽고 통랴오에서 한 달 쯤을 맞이하면서 감사드릴 제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에게 사명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딸의 가는 길을 한결같은 기도와 지지로 함께 해주시는 부모님.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언제나 나에게 도전을 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해 주는 한국선의복지재단. 통랴오에 오기 전 3개월간 거의 세뇌에 가까운 묵상을 하도록 “학생들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잘 하라!”고 조언해 주신 박정환 선생님. 수업면이나 생활면에서 이 분이 안 계셨다면 현지 적응이 어려웠을지도 모른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오아시스 안종향 선생님. 이 모든 분들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선생은 중국 내몽고 통랴오에서 힘차게 달립니다!

+ 해외사업소식

미국 - Sunny Foundation 뉴욕 법인 이야기

선의재단 뉴욕 법인에서는 선의재단과 마음을 같이하는
교민들이 모여 꾸준한 기도모임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뉴욕지역 노숙자, 청소년사역, 북한선교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하며,
2007년부터 뉴욕 선교사의 집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활동보고

1. 새 선교관 운영

2016년 뉴욕법인에서는 그동안 선교사님들께 쉼터가 되었던 선교사의 집이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면서 뉴욕이 국제도시라는 특성 때문에 찾는 분들이 많아져 오시는 분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한정적인 공간이기에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올해 새 선교관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 선교사의 집 소식지 '아름다운 발' 발간

할렘에서 노숙자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고 목요일 저녁마다 선교사의 집에서 한국과, 미국, 열방을 위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새선교관 운영 건축사진



+ 해외사업소식

미국 - Sunny Foundation LA 지부 이야기

John 3: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Sunny Foundation LA’는 2008년부터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뜻을 함께 하는 40여명의 회원과 매달 기도로 사역에 동참하는
10명의 임원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전문적으로
건강하게 돕는 단체들을 후원하고 장애인, 암환우 가정들도 돌보고 있습니다.

2016년 활동보고

1. Rainbow Family Inc.

각종 중독과 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과 자녀들, 임산부들에게 인종의 제한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6-12개월 간 성경적 프로그램으로 재활교육을 13년 간 해 온 기관입니다. 매달의 후원금과 증축헌금 등으로 돕고 있습니다.

2. Livingstone Community Health Clinic

타 인종의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6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운영상 일반환자들도 받고 있습니다.

채혈, 점심 제공활동 등 지역사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3. Role Foundation

남가주 지역의 주택비가 급등하면서 노숙자들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그 런데 한 자매의 이들을 향한 사랑이 13년 간 매 주 토요일 한 주도 빠짐 없이 섬기는 일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찬양과 기도, 머핀과 바나나, 과자, 음료, 물, 커피 등을 나눠드립니다. 저희는 매달 후원금과 때때로 특별 간식을 마련하여 동참하고 있습니다.

4. 국제고아학교 사역을 하는 ‘YesDaddy’의 선교 차량 구입

5. ‘미주 장신대’ 장학기금 지원

6. 북한 미디어사역

7. 미국인과 한인 양로사역

8. 중국의 예배음악자들을 키우는 ‘Noah Music’

9. 암환우 가정 등 어려운 환경의 학생 후원금 전달



지희 이야기

할머니가 오래오래 사시는 것이 소망이라는 중학교 2학년 현민이의 이야기.



현민이(가명)는 할머니, 누나, 형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현민이가 3살 때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갑작스런 건강악화로 현재는 함께 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3살 때부터 할머니 품에 맡겨진 현민이는 지금 중학생 될때 까지 부모님의 사랑 대신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이러한 가정환경 때문에, 할머니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현민이는 할머니가 연세가 드시면서 건강에 적신호가 올때면 항상 할머니 건강을 걱정을 하며 현민이가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하곤 합니다. 자기자신의 미래와 꿈을 그려야 될 나이 14살의 소년이지만, 현민이는 소원이 단 하나라면, 바로 할머니가 오래오래사시는 것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현민이에게 꿈이 생겼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할머니는 현재 나이가 70세가 넘으셨지만 동사무소 공공근로를 주3회 나가시면서 생활비를 벌고 계십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할머니는 현민이가 기죽지 않고 몇몇하게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현민이에게 태권도를 가르치셨고, 현민이도 태권도를 배우면서 흥미도 가지며 태권도 사범이라는 꿈도 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오르는 생활비에 이제 할머니 혼자 버는 돈으로는 현민이의 태권도 학원비를 비롯해 손자들을 키우기 위한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선의재단에서는 현민이의 꿈이 사라지지 않도록 현민이에게 매달 학비와 교육비를 지원하고있습니다.

비록 어려운 환경에서 지내고 있지만, 할머니의 사랑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를 만나 마음과 몸도 튼튼해지고 꿈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민이가 앞으로도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현민이의 행복한 꿈을 응원합니다.

경남지회 지회 사업보고

‘네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고자 2000년 3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외롭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찾아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과 관심을 전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참된 위로와 새로운 삶의 의지를 갖게 하는 일이 최우선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도 활동보고

1. 소년소녀가정방문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발굴하고,
각 가정에 후원금을 전달 및 가정방문을 실시

2. 함안 사랑의 쉼터방문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쉼터에
명절에 방문하여 식사를 제공 및 격려

3. 사랑의 집 식당봉사

세달에 한번씩 각나라에서 온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해
100명 안팎의 식사대접 및 성경공부 예배진행

4. 삼천포 한마음 병원방문

치매 및 중증노인 요양시설에 명절에 방문하여
200여인분의 정성스런 음식준비와 함께 예배진행



경주지회 사업보고

한국선의복지재단 경주지회는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사랑과 봉사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들의 선의를 모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연결시켜주는 사회봉사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활동보고

- 지역사회 의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경주지역의 저소득층, 장애아동,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등 후원금 전달사업 진행



대구지회 사업보고

대구지역에 거주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물질적 나눔의 장을 열어 생활에 안정을 기여하고, 종합적인 사회복지시설을 갖추어 지속적인 복지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통합사회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2016년 활동보고

- 한국영재장학회 대구오페라합창단 지원

- 한국영재장학회 : 음악에 소질이 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운 조손가정 결손가정 자녀 개인레슨 지원
- 대구오페라합창단 : 2016년 9월에 창단, 불우시설 교도소 노인시설 등에 음악봉사 진행

- 2017년 계획 :

저소득 가구의 성악 무상교육을 실시예정





영동선의연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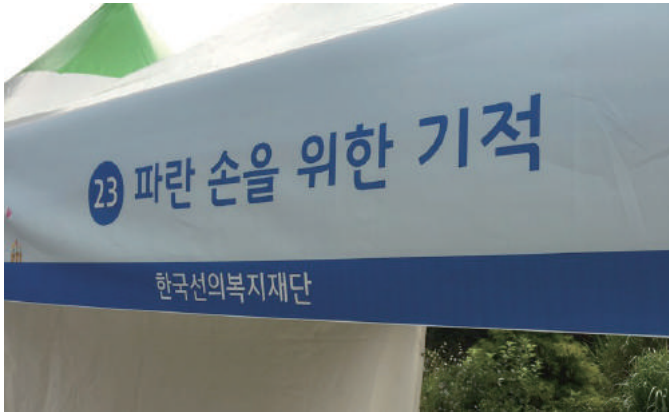
각종 과실나무로 뒤덮인 무공해 청정 마을에 자리 잡고 있는 선의연수원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선의를 베풀며
여유와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선의연수원 공간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지역 구성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

2016년 활동보고

- 장소대여 : 지역 공동체의 요청에 따른 강당 및 운동장 대여
- 밑반찬 서비스 : 지역내 독거노인 가정에 월2회 밑반찬 제공



파란손을 위한 기적



아이들의 청색증 체험과 캘리그래피 액자전단



매년 용산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산구 사회복지박람회’가 올해 4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용산구 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들과 지역주민들과의 만남의 장으로 사회복지사의 날인 9월 7일에 열린 이 뜻깊은 행사에 한국선의복지재단도 함께하였습니다.

재단에서는 심장병 환아 수술지원사업을 알리기 위한 ‘파.란.손.을.위.한.기.적’이라는 ‘청색증’을 주제로 답았습니다.

청색의 푸른빛의 손을 체험과 더불어, 캘리그래피 액자를 나누어 드리는 행사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오전에는 청색증을 체험하기 위한 유치원 아이들이, 오후에는 중고등학생 참가자로 선의재단 부스가 지역내 꼬마 아이들, 중고등학생, 지역주민들로 가득 매워졌던 하루였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건강하세요’와 같은 사랑과, 건강, 감사의 문구 요청이 많이 왔습니다. 건강하게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가 마음속에 가득찼던 하루를 보냈고, 알찬 시간으로 기억되었던 용산구 사회복지박람회였습니다.





서울역에서 진행된 뉴라이프 오케스트라 활동사업

한국선의복지재단 뉴라이프 오케스트라 이야기

서울역에 울려 퍼진 희망의 하모니

7월7일, 서울역에서 여행과 비즈니스로 분주한 행인들의 발길을 붙잡는 하모니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한국선의복지재단과 뉴라이프재단, 그리고 코레일이 함께하는 '뉴라이프 오케스트라 합창단 음악회'가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아리랑부터 You Raise Me Up 등 우리에게 익숙한 곡들로 음악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콩쿠르와 음악 캠프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처음보다 많이 밝아지고, 음악을 전공으로 하겠다는 목표가 생긴 아이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는 트럼펫을 배우면서 3년 연속 콩쿠르에서 1등을 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문적인 음악가로서의 꿈을 키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재능을 나눌 수 있는 음악가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 합니다.

국선의복지재단은, 뉴라이프 재단과 함께 한국의 보육원에 살고 있는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꿈이 이루어 질 수 있게 음악적으로 재능 있는 아이들을 발굴해서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 국내사업소식

베트남 ODA 청년인턴 모니터링 출장기

| 베트남출장을 다녀와서

한국선의복지재단(이하 선의재단)에 입사하기 전까지만 해도 나에게 베트남은 그저 ‘호치민, 쌀국수, 커피’ 이 세 단어 정도로 각인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사회주의국가’ 라는 딱딱한 인식 때문에 선뜻 관심도 가지 않았고 후진국이라는 고전적인 이미지 때문에 굳이 여행을 가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내가 선의재단에 입사 후 ‘개발도상국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무료 수술 사업(이하 선천성 심장병 수술 사업) 및 난치성 질환 치료 지원 사업’을 담당하게 되면서부터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대해 궁금해졌다. 선의재단의 주요 사업 국가로써 월드프렌즈 NGO봉사단을 파견하기도 했으며 베트남 썩션현에 ‘하노이 적십자 선의 한국 병원’을 설립하여 현지 마을 주민들에게 무료 진료를 진행하고 있고, 무엇보다 2001년부터 이어진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무료 수술 사업’의 도화선이 된 ‘카잉 썩’ 환아의 나라이기도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 하나하

나가 몽چه 몽글몽글 생긴 호기심들이 나의 마음속을 간질이던 찰나, 지금 내가 소속되어 있는 ODA 청년인턴에서 내가 맡은 사업의 모니터링 출장을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 그렇게 설렘을 안고 사무국의 지성은 팀장님, 전준휘 간사님과 함께 베트남 출장길에 올랐다.

베트남에 도착 후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드는 첫 느낌은 ‘정말 덥다, 매우 덥다, 아주 덥다.’

당시 출장을 갔던 때가 9월 말이었었는데, 그때 쯤 한국의 날씨는 가을이 찾아오는 선선한 날씨였다. 한국에서는 긴팔을 입고 얇은 겉옷을 하나 걸쳐야했던 날씨였는데 베트남에 오니 다시 여름으로 걸어들어온 기분이었다. 같이 동행한 베트남 출장경험이 많으신 팀장님께 날씨가 덥다고 하니 돌아온 답변은

“박간사님! 지금 진짜 시원한 날씨예요! 베트남에도 가을이 찾아왔네요.^^”

라고 하시는게 아닌가...! 더위에 취약한 내가 출장

베트남 하노이 지부전경





베트남 하노이 적십자 선의한국병원 10주년 행사

일정을 소화하기도 전에 더위에 잡아먹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첫 날의 베트남 기온은 나에게 강렬하게 더운 느낌을 주었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하노이 적십자 선의 한국 병원’(이하 하노이선의병원)의 10주년 관련 행사가 진행되었다. 마을 주민들 모두가 아침 일찍부터 모여 자리를 꽉 채워주었고 특별히 선천성 심장병 수술을 하고 돌아간 69차 타오번 아동과 30차 부티엔닷 아동이 장학금 수령 차 멀리서 발걸음을 하여 방문하였다. 사진으로만 보던 타오번 아동과 부티엔닷 아동을 직접 보니 내가 직접 선천성 심장병 수술사업을 진행한 차수의 아동들이 아니어서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반가운 마음과 수술 후 잘 커주는 것이 고맙고 대견한 마음이 들었다. 특히 타오번 아동은 처음 봤을 때는 경계하고 낯을 가리느라 내 쪽에는 오지도 않았었는데 차츰 마음을 열더니 결국 행사 진행 내내 나의 옆에서 찹쌀떡처럼 붙어있었다. 나를 포함한 선의재단 직원들과 봉사단원들이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무대들로 행사 순서가 진행되었고 행사가 진행되는 내내 마을 주민들은 아이처럼 너무나도 좋아해 주었다. 우리가 준비한 공연을 보며 행복해하는 그네들의 모습에 나 또한 행복해지는 시간이었다. 공연이 끝난 뒤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맛있는 밥도 푸짐히 먹고 현지의 주민들, 병원직원들, 봉사단원들과 교류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늘 가슴에 ‘가치로운 일’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살았었다. 진정한 ‘가치로움’이란 무엇일까?

혹 자는 물질적인 것에 가치로움의 무게를 더 실을 수도 있고, 혹 자는 명예 또는 권력과 같은 사회적 위치를 최고의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를 단편적인 예로 들자면 대학교 입

시 전의 최고의 가치로움은 ‘명문 대학’ 이었고, 대학교 학부 재학시절에는 ‘좋은 성적’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걸음을 내딛는 나에겐 직장생활에 있어서 물질적인 것과 사회적 위치를 고려하지 않기로 쉽지 않았다. 주변에 번듯한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한 적도 있었다. 무엇보다 첫 사회생활이다 보니 이것저것 재고 따지며 첫 직장을 알아본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생각한 가치로움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었고 사회생활의 초석을 진정한 ‘가치로운 일’로 다지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지배적이었다.

그러던 중 선의재단을 알게 되었고 무엇에 홀린 것처럼 선의재단에 입사하게 되었다. 입사 후 선천성 심장병 수술 사업을 담당하게 되면서 내 판단이 옳았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수술이 늦어지거나 받지 못했다면 목숨을 잃게 되었을 선천성 심장병 아동들이 수술을 받고 난 후 밝고 씩씩하게 살아가주는 모습, 베트남의 제일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위해 의료로써 물심양면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하노이 선의병원의 직원들과 봉사단원들의 모습, 그런 하노이 선의 병원에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썩선현 마을 사람들을 보며 진정한 ‘가치로운 일’에 대해 하나의 뚜렷한 정의가 세워졌다.

보답을 바라지 않는 선의를 베풀었을 때 보답 그 이상의 가슴 벅찬 ‘가치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올 해의 가을은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가을이었다. 가장 격렬하게 가슴이 뛰었고, 벅찼고, 뿌듯했으며 그로 인해 나의 내면은 뜨겁게 성장했다.

그 더웠던 베트남의 기온이 무색할 정도로,

아니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질 정도로.

한국선의복지재단 | 박유정간사

팽사, 학수, 중미영 세 친구들의 이야기



학수郝帥 (내몽고민족대 전자 정보통신 전공 4학년)

안녕하세요. 저는 학수라고 합니다. 이번 교환 학생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온지 2달이 됐습니다. 한국에 온 후에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지금 한국어와 전공수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공수업을 배울 때 한국의 대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걸 통해 저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학생활이 조금 힘든 반면에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운지 2년 넘었는데 아직 잘 못 하는 것도 많아서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어 실력이 높이고 싶습니다.

강원대학교는 환경과 시설이 좋고 사람도 친절합니다. 저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게다가 외국학생을 위해 여는 행사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전통 문화에 대한 설명회, 사물놀이, 김치 만드는 것, 한복을 입은 경험등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추석 때 우리 서울에 구경하러 갔습니다. 서울 볼만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곳은 경복궁입니다. 한복을 입으면서 경복궁을 구경해 봐서 고려시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야경을 보려고 해서 남산 타워에 갔습니다. 서울을 한 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성정에 경치를 봤을 때 앞으로 자신의 노력 통해 이런 곳에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중미영仲美映 (내몽고민족대 중국어 국제 교육 전공 4학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중미영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국에서 이미 두달이 지났다. 한국에 온 시간이 길지 않지만 나는 지금의 유학 생활의 설렘과 기대감이 많이 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나는 한국어로 말하기에 대한 정말 자신이 없어서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혹시 실수나 하지 않을까 해서 너무 긴장하게 된다. 후에는 내가 한국말을 잘 하고 싶으면 꼭 자주 다른 사람들과 한국어로 교류해야 하는 것을 의식하였다.



이 글은, 내몽고민족대학교에서 온 현재 강원대 교류학생으로 재학중인 세 학생들이 직접 한국어로 작성한 글입니다. 받침이나, 어휘가 틀린 부분에 대해 초안 그대로 올린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나갈 때마다 항상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한국어로 이야기를 한다. 비록 나는 지금 한국 사람처럼 말할 수 없기는 하지만 나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보다 자신이 더 있다. 게다가 내 말하기도 어느 정도 향상되다. 그리고 나중에 나도 이렇게 열심히 연습할 겁니다.

학습 방면에서 나는 친구랑 같이 어학원에 가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그리고 입학하기 전에 쉬운 한국어 능력 시험 있었다. 시험지는 나한테 너무 어려워서 내가 포기하고 싶은데 어학원의 친절한 선생님들께서 나에게 아주 커다란 격려를 주었다. 마지막 나는 3급 반에 들어갔다. 학급 중에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말을 이해하고 싶으면 꼭 한국어를 말한다. 이것은 매우 어렵지만 정말 재미있는 뿐만 아니라 내 한국어 말하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한국어하고 한국 문화를 공부 할 수 있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알게 된다. 그래서 나는 매일 한국어 수업을 기대하다.

나는 공부하는 시간을 빼고는 내 여가 생활도 아주 다양하다. 수업이 없면 나는 항상 친구와 같이 한국의 유명한 곳에 한다. 나는 이것도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좋은 방법이다. 지금까지 나는 경복궁과 남산타워와 한국 민속촌등 곳에 갔다.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민속촌이다. 나는 그 날에 나는 한국 문화에 대한 더 잘 이해하고 한국 문화의미를 체험했다. 그래서 나는 한국을 더 좋아해진다.

나는 지금 한국어 공부에 집중하고 있다. 아직 유학 생활에 완전히 적응되지 않아서 어려운 점도 있지만 매일 매일이 정말 새롭고 즐겁다.

팽사彭思 (내몽고민족대 국제 경제 무역 전공 4학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지 모르는데 한국에 온지 2달쯤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 유학 생활이 진짜 아름답고 보람칩니다. 매일마다 한국어 수업하고 전공 수업이 있으니 항상 시간에 쫓기기는 하지만 수업을 통해 친절하고 착한 친구들을 많이 사귄 수 있으니 너무 기쁩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공부할 뿐만 아니라 주말에 저도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다른 이름난 곳으로 여행을 가거나 친구와 같이 여러 가지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또한 따뜻한 사람들 만나서 지금 유학 생활에 완전히 적응된다. 매일매일 새롭고 재미있는 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기쁨과 행복한 생활이 저를 한국에 계속계속 살고 싶게 합니다.

지금 한국을 우리 고향만큼 좋아합니다. 또 남은 동안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유감이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이야기

어르신들의 특별한 모임, 반찬나눔모임 '애찬들'을 소개합니다

“모여서 음식도 만들고, 같이 먹으니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아!”



“적적해. 혼자 먹는 밥은 맛도 없어”

복지관에서 식사를 배달 받으시는 어르신들은 대개 몸이 많이 불편하십니다. 걷고 움직이는 활동이 힘들어 동네 마실도 못 나가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 복지관에서는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반찬’ 사업을 통해 아파트에 사시는 어르신들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같이 먹으니 정말 맛있네요. 종종 놀러오세요.”

첫 모임에는, 다섯분의 어르신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껌연쩍어하시며 들어오시던 어르신들의 모습, 고구마, 알사탕, 땅콩 등의 주전부리들. 거동이 힘들지만 같은 아파트라 올 수 있었다고 좋아하셨던 어르신들의 말씀. 그렇게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번의 만남이 즐거웠습니다. 즐겁고 신나기에 만남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인기척 없던 어르신 댁에서

사람소리가 났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어 못 드셨다는 어르신들이 밥 한공기를 똑딱 해치우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함께하는 모습이 즐거웠습니다 “오늘만 기다렸어. 해물파전 넉넉히 해서 옆집 김씨도 좀 주자고”

올해도 어김없이 셋째주 수요일이면 어르신들이 모입니다. 이젠 “옆집도 혼자야. 노인들은 서로 챙겨야 해”라고 말씀하시며 따뜻한 나눔을 전하십니다. 이 모임은 올해로 3년차가 되어갑니다. 이 아파트 단지 어르신의 관계는 좀 더 넓어지고, 끈끈해졌습니다. 단순한 ‘반찬’을 주제로 한 만남은 옆집, 아랫집 사정까지 두루 살필 정도로 진해졌기 때문입니다.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은 어르신들의 가까운 관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모든 어르신 댁에서 사람 냄새가 나는 그날까지... 어르신들의 ‘반찬나눔모임’을 응원합니다.

2016년도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활동보고

진행월	사업명	주요내용
1월	제8회 꿈끼페스티벌	관악구 지역아동센터 아동 청소년 공연발표, 작품전시회
2월	설날행사	무료급식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새해맞이
4월	재가 어르신 나들이	어르신들의 문화 활동 지지 및 즐거운 노년 생활을 위한 관악구재가어르신 연합 나들이
5월	어버이날 행사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카네이션달기, 식사, 노래자랑대회
6월	호리목 카페	복지사업 기금마련 후원행사
7월	어르신 삼삼오오 나들이	어르신과 함께하는 야외나들이 2회 진행
8월	선의 원두막 학교	1, 3세대 간 소통을 주제로 한 여름방학특강 우리 동네 손주돌보기 프로젝트
9월	호리목 우리마을 축제	지역주민이 직접 계획, 준비하는 우리마을축제
11월	김장행사	KT&G복지재단과 함께하는 2016년 관악구 사랑의 김장 나눔 릴레이
	사랑의 짜장면나누기	'관악구중화요리봉사회'와 함께하는 사랑의짜장면 나눔행사 연6회 진행
	피아노교실 발표회	교육문화사업 피아노교실 아동들의 피아노 연주회
	캠페인 활동	이웃들과의 정을 나누고 소통하기위한 캠페인사업 연8회 진행
12월	해피시니어스쿨 발표회	어르신의 여가생활 프로그램의 연말 발표회
	자원봉사자, 후원자의 밤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를 감사의 밤(감사인사 및 영화상영)
	미술교실 작품전시회	교육문화 미술교실 아동들의 연말 작품 전시회



어르신 삼삼오오 나들이



김장행사



어버이날 행사



호리목 우리마을축제



캠페인 활동

선의어린이집 이야기

건강한 몸과 마음의 육성

선의어린이집은 아름다운 생각과 말, 아름다운 행동을 통해 남과 더불어 살아감에 있어서 사회성을 기르고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행복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의 육성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바른인성 선의사랑 | 사회적 병리 현상이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긍정적인 자아중심의 확립, 자기조절능력,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실천적인 기본생활습관 형성 및 바른 마음가짐과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기회를 가집니다.

| 놀이를 통한 교육과 가정과의 연계 | 영아의 시기에는 인지위주의 학습보다는 아이의 호기심을 충분히 충족시켜 주는 놀이가 필요하므로 오감을 발달시키는 여러 놀이를 통해 감성뿐만 아니라 그와 연관된 지적 능력, 학습능력이 함께 높아질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자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올바른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부모교육과 부모참여를 통해 가정과 연계하며 지도합니다.



자연현장학습 및 견학

매월 1회 현장학습으로 식물원, 동물원, 농장체험, 뮤지컬공연 관람 등을 통해 오감발달 및 인지발달을 돕습니다.



부모참여수업- 숲체험과 신나는 레크레이션

부모님과 함께 아름다운 자연을 경험하며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고유 명절행사 - 중추절

웃어른을 공경하는 마음과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며, 다양한 민속놀이 활동 진행합니다.



열린어린이집

월 1회 학부모님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동화구연, 만들기, 요리활동 등을 진행하여 영·유아 및 학부모에 대한 신뢰감과 만족감을 향상시킵니다

선의와의 인연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한국선의복지재단과의 인연은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운영이사회의 하숙란 회장님의 소개로 알게 된 선의은행이라는 곳에서, '선한일을 예탁 받아 불우한 이웃들에게 그 선의를 나누어주는 은행역할'을 한다는 그 낯선 이름은 저의 마음을 매료시켰습니다.

진주에는 옥봉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산자락에 비닐로 움막처럼 지어져 있는 동네에 독거노인들이 모여사는 참으로 초라하고 구차하기 짝이 없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한분 두분 모여 집단 독거노인 동네가 되어버린 그 곳이 제일처음 우리 선의 경남지회의 첫 후원대상이 되었고 이를 시작으로, 독거노인돌봄, 소년소녀 가장 돕기, 불우학생 등록금 지원 등, 사람들 속의 따뜻한 마음을 이끌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작은 선의의 마음은, 2000년 3월14일 선의경남지회의 창립에 이르렀습니다. 창립기념식에서 모아졌던 축하금은 종잣돈이 되었고, 선의의 후원자들이 하나둘씩 모여 그렇게 선의경남지회는 시작되었습니다.

달마다 하회장님 댁에서 모여 친히 후원계좌를 쓰고, 우표를 붙여 우편물을 보냈던 일, 독거노인어르신가정 방문, 소년소녀 가장 지원사업 등, 발로 뛰며 일했던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힘든 줄 모르고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선의와 함께 발로 뛰던 그 시절, 이웃을 위해 베풀던 선의는 돌고 돌아 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런 남편의 급성간부전증으로, 간을 이식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저에게 닥쳤습니다.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남편에게 저의 간을 이식해주어야 하는 단

계까지 이르고, 갑작스럽게 닥친 어려운 상황에 어찌할 바 몰랐지만, 선의복지재단으로 인연이 된 하회장님께서 하루에도 수차례 병원을 방문하시며 먹거리와

기도로 눈물로 도와주셨고, 고3인 아들을 친한 성도가 자기 집으로 데려가 보살펴 주었고, 섬기던 교회는 모금까지 해주셨으며, 많은 회원들이 물질과 기도로 도움을 주셨던 그 기억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두려웠던 기억들을 지나, 이젠 1남 3녀의 자녀들이 모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손자손녀를 5명을 두게 된 할머니가 된 저, 선의와 하회장님과의 인연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이며 예정하셨던 섭리였음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 선의 경남지회는 17주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함께했던 선의경남지회 회장님, 이사님, 회원님들이 더욱 보고 싶습니다. 현재 중앙회 이사가 되어 이사회 회의 반가운 선의의 얼굴들을 만나는 기쁨으로 달려 갑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그 모든 인생의 여정가운데 주인되어 주셔서 사랑과 은혜로 이끌어 주신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국선의복지재단 34주년과 복지관 29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시간 선의소식지에 선의와의 인연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최정애 이사





월드프렌즈 NGO 봉사단 이야기

한국선의복지재단에서는, 2016년 4명의 자원봉사단을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이 지부로 파견하였습니다.
바로 네 주인공 한수정, 박윤진, 경병철, 김지은 단원입니다.
단원들이 베트남 현지의 자원봉사활동의 현장감있는 소식들을 들려주었습니다.

Q1. 안녕하세요 한수정, 김지은 단원 현재 베트남에서 하고있는 활동에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한수정단원 : 저는 하노이에 위치한 '하노이적십자선의한국병원'에서 재단과, 병원의 의사소통을 위한 커넥터활동 및, 병원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물리치료사 정덕천 선생님과 함께 무료이동진료, 가정방문, 장애인 아동 건강검진, 1:1아동결연후원금전달 등 진행하고 있습니다.

A. 김지은단원 : 저는 호치민지부에서 활동하며, 호치민 필하모닉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부지휘자로서 청소년 오케스트라 학생 지도 및 연 2회 정기연주회 사업과, 호치민에 있는 센터에서 베트남 학생이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2.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A. 박윤진단원 : 어린 시절 우연히 개발도상국 우물지원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고,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되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현지에 가서 그것들을 실제로 눈에 보고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현지에 와 생활을 하고 있네요.



IT 교육활동사업



호치민필하모닉오케스트라연주 연습

A. 경병철 단원 : 학창시절, 봉사활동시간을 채우기 위하여 방문했던 구청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은 시간만 채우기 급급했을 뿐 당시에는 진정한 자원봉사의 의미를 느끼지 못했지만, 그 당시 고향이 가쁜 집에서 외롭게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청소와 벽지도배를 하면서 대가성이 없는 정성이 담긴 마음으로 하는 활동들이 의미 있다 생각했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께서 주시는 과일이 돈보다 더 값지다는 생각과, 저의 작은 활동들이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시점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Q3.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아니면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A. 김지은 단원 : 지난 6월 10일에 필하모닉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제4회 정기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연주회 준비과정 중간에 투입이 되다보니, 마감 준비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막바지에 잠을 좀 못 잤던 게 힘들다면 힘들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연주회를 성공적으로 잘 마쳤고, 그 시간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생각을 하며 연주회가 마무리 되는 순간 피로는 순간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A. 한수정 단원 : 연말에 환자분들에게 사진을 찍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였는데, 카메라에 익숙지 않은 분들이라 저를 피해 다니셔서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보는 카메라에 어색해 하셨지만, 환한웃음을 저에게 전해주셨고, 나중에 인화된 사진을 받으시면서 행복해 하는 모습에 기분좋은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툰 사진솜씨임에도 그저 고맙다고 해주시는 환자분들께 저 또한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Q4. 앞으로 한국선의복지재단을 통해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나 메시지가 있습니까?

A. 박윤진 단원 : 먼저는 정말 좋은 기회이니, 주저하지 않고 도전해보셨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또한 봉사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나 어렸을 때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셨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A. 경병철 단원 : 저는 한국선의복지재단을 만나면서 많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 지부에 파견되기 전에는 누구를 만나는 간에 항상 표정이 어두웠고 상대방을 경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선의복지재단을 만나면서 이사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과 호치민 지부 식구들이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그로 인해 자신감이 회복되고 사람과 만나는 것이 편해졌습니다. 그 이후 즐겁게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과 같은 분위기에 외롭고 힘든 해외생활을 즐겁게 봉사하며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선의 사람들



통역자원봉사자 차린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히브리서 13:16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선의복지재단에서 통역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있는 차린입니다.

한국에 온지 어언 8년 7개월, 저에겐 예쁜 아이가 둘이 있고, 요즘은 이태원에 있는 불가리아 식당에서 일하며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항상 남을 도와야 된다는 마음뿐이었는데, 2013년 12월 건국대병원에 우연히 작은아들 미산이가, 병동에 입원했던 외중에 한국선의복지재단에서 온 필리핀 심장병 아이들이 같은 병동에 입원해있었고, 그때 연미영 간사님을 만나 통역자원봉사를 할 기회가 생겨, 그때부터 지금까지 선의재단에서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말을 못 하고 들을 수 없는 필리핀에서 온 아이 걸리의 심장수술과, 보청기삽입수술을 받을 당시 병원에서 머무는 때 함께 종이접기, 그림그리기를 같이 하며 정이 많이 들었었고, 세상의 소리를 처음 듣게 된 걸리의 그때 모습을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어 지금까지 선의재단과 함께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통역 및 아이들을 돌보는 활동들은 저에게 있어 매우 보람있고, 의미있는 일이기에, 점진적으로 더 많은 일을 선의와 함께 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의 심장수술 및 기타 수술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 전준휘 간사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건 가슴 떨리고 설레는 일이다.’

학생이라는 꼬리표를 미처 떼지 못했던 2016년 1월의 어느 날, 낯설고 차디차던 서울의 한 가운데에서 나는 한국선의복지재단을 만났다. KOICA ODA 청년인턴이라는 이름으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다소 데면데면했던 녀석을 더 깊이 알고 싶어 청운의 꿈을 안고 상경한 나에겐, 나의 작은 힘으로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꽃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국선의복지재단이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현실을 그리 녹록지만은 않았다. 당시 복사기 하나 건드릴 줄 몰랐던 난 월드프렌즈 NGO봉사단 사업, 해외결연아동사업, 해외지부 관리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되었고, 모든 것이 서툴렀고, 매 순간이 실수의 연속이었다. 무슨 일이던 물어보지 않으면 한치 앞도 나아 갈 수 없었다.

‘서당개도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그 흔한 속담이 괜히 나온 말은 아닌건지, 때로는 칭찬을 때로는 꾸중을 들으며 웃웃의 소매가 길어졌다 짧아졌다를 반복하는 사이 가끔 내가 배웠던 것을 후배간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아, 내가 조금은 성장했구나!’ 라는 뿌듯한 생각도, 그리고 돌아서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자책도 하며 선의재단 속에서 자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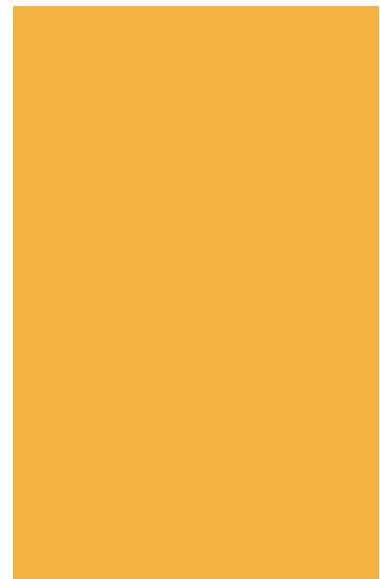
재단과 함께한지도 어느덧 한 해가 다 되어 가는 가운데 여전히 순간순간이 신기할 때가 있다. 서울의 탁한 공기를 마시며 자전거로 출퇴근 하고 있는 내 모습이, 심장병 수술을 받고 건강하게 뛰노는 아이가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후원금을 전달하러 가는 차 안에서 하노이를 바라보는 내 모습이, 지금 사무실 안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말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신기한 점은, 열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누르고 두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클릭하는 이 흔하디흔한 행위를 통하여 누군가는 새 심장을 선물 받았고 누군가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열망을 이루었으며 누군가는 새 학기에 필요한 학용품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생각들로 인해 난 느낀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20대 중 한 명인 내가, 방황하지 않은 채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의미있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서울에 일가친척 하나 없는 경주촌놈의 비빌 언덕이 되어준 한국선의복지재단이 참으로 고맙다고. 그래서 평상시 글을 쓸 때 가장 어려워했던 ‘글의 첫 마디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들지 않은 채 한 줄 두 줄 담담하게 술회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아직 한 해가 채 마무리 되지 않은 어설픈 2016년의 끝자락에서 과연 내가 재단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지며 올 한해를 유종의 미로 거둘 수 있도록 노력 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재단을 통해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 할 수 있도록, 기도 해 본다.

+ 선의 나눔

후원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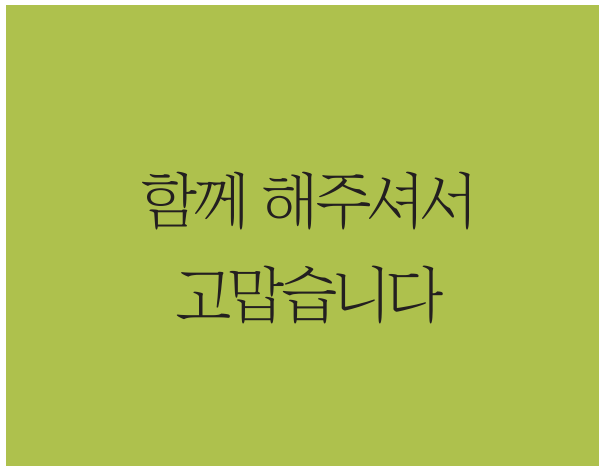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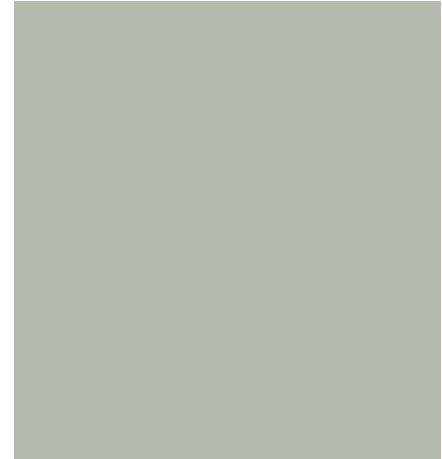


2016 Sunny Korea News
www.sunnykore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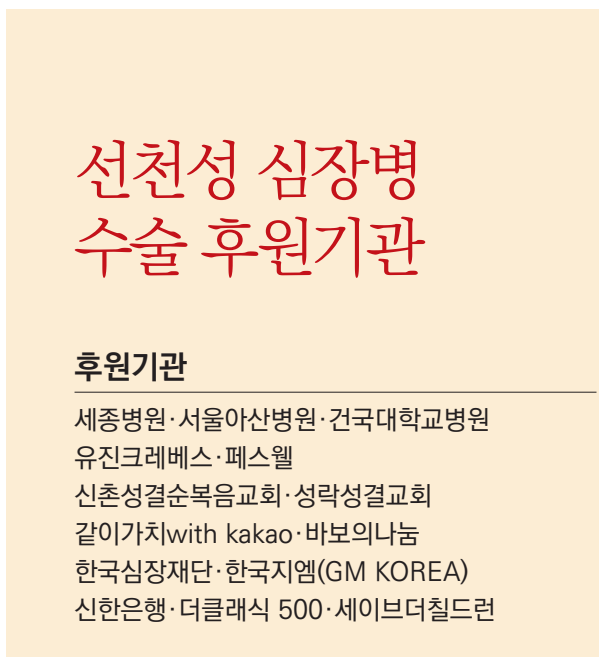




78차 필리핀 2016년 7월 (라구나, 모레노, 카스틸로, 선, 재즈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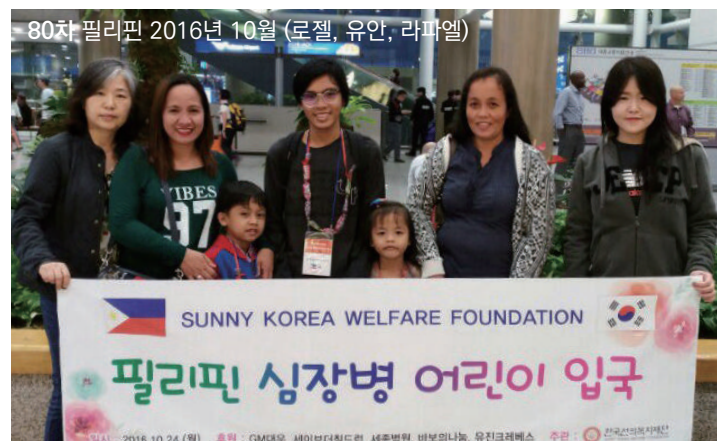


79차 베트남 2016년 9월 (응안, 끼엔)



후원기관

세종병원·서울아산병원·건국대학교병원
유진크레베스·페스웰
신촌성결순복음교회·성락성결교회
같이가치with kakao·바보의나눔
한국심장재단·한국지엠(GM KOREA)
신한은행·더클래식 500·세이브더칠드런



80차 필리핀 2016년 10월 (로젤, 유안, 라파엘)

2016년도 한해동안 후원해주신 감사한 후원자분들을 소개합니다.

(주)항진축산, 강명자, 강미애, 강유경, 강현숙, 광미선, 광개토여행사, 금석봉송담추어탕, 김경란, 김경숙, 김권섭, 김동민, 김돌임, 김민애, 김성오, 김소영, 김수정, 김숙, 김숙자, 김승진, 김신혜, 김연희, 김영애, 김옥, 김유자, 김인자, 김재병, 김정숙, 김정자, 김지영, 김태한, 김형철, 김혜숙, 김화봉, 김희영, 김희정, 남서울교회, 남숙영, 다음 희망해, 디와이홀딩스(주)서울지점, 문계숙, 문정인, 문정임, 문필기, 문현수, 김소현, 문형호, 민경희, 민정기, 박공남, 박규석, 박길준, 박대수, 오명, 박동찬, 박소윤, 박영배, 박영희, 박유정, 박정화, 박정희, 박현구, 백병령, 백준화, 변선경, 사회복지박람회 참여후원자, 서애숙, 서울네이션즈교회, 서울덕수초등학교 61회, 손정자, 손필옥, 송순득, 송현숙, 신미경, 신영현, 신진섭, 신창국, 신촌교회로이스회, 신촌교회지회, 안대현, 안은지, 안종향, 양윤정, 여옥기, 여주기, 오세임, 오지원, 오차영, 오혜영, 우동일, 위희숙, 윤원희, 윤은주, 윤재원, 윤재훈, 윤정이, 윤정혜, 이경민, 이경원, 이경자, 이기자, 이동은, 이동훈, 이동훈(균명중20), 이미자, 이상운, (주)뷰티채널, (주)한원컨트리클럽(김인식), 이수연, 이영신, 이용신, 이윤지, 이은희, 이일화, 이재열, 이재훈, 이정순, 이종국, 이종호, 이향준, 이현주, 이효, 이희경, 임봉수, 임성호, 임영자, 전준휘, 정경순, 정송자, 정승자, 정은실, 정진욱, 정호연, 조경옥, 조동수, 조문자, 조영숙, 조윤자, 조은영, 지성은, 진영희, 천영옥, 최완정, 최원중, 최원형, 최정남, 최효리, 표승희, 하숙란, 한국선의은행중앙회, 한왕석, 한태희, 함종문, 해피빈, 허난숙, 허종순, 현숙미, 홍순찬, 황명덕, 황명호, 황진선.

